## 다시 푸는 경서 — 초발심 자경문 (13 · 끝)

主人公 汝値人道 當如盲龜遇木
(주인공아 여치인도가 당여맹구우목이어늘)
一生幾何 不修懈怠
(일생기하인대 불수해태오)
人生難得 佛法難逢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此生 失却 萬劫 難遇 須持十門之戒法
(차생실각이면 만겁 난우니 수지십문지계법하여)
日新勤修而不退 速成正覺 遍度衆生
(일신근수이불퇴하고 속성정각하여 환도중생하라)

주인공아, 그대가 사람 몸 받은 것 응당 저 눈먼 거북 나무토막 만난 격인데 한 생이 얼마나 된다고 닦지 않고 게으르리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이번 생 놓치면 만겁이 지나도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모름지기 이 열가지 계법 잘 지녀서 날마다 새록새록 부지런히 닦아 물러서지 않아서 속히 바른 깨달음 이뤄 돌이켜 중생을 제도토록 하라.

我之本願 非謂汝鎭出生死大海
(아지본원은 비위여독출생사대해라)
亦乃普爲衆生也 何以故
(역내보위중생야니 하이고오)
汝自無始以來 至于今生 恒値四生
(여자무시이래 지우금생히 항치사생하야)
數數往還 皆依父母而出沒也
(삭삭왕환에 개의부모이출몰야일새)
故 曠劫父母 無量無邊
(고로 광겁부모 무량무변하니)
由是觀之 六道衆生 無非是汝 多生父母
(유시관지컨대 육도중생이 무비시여 다생부모라)
如是等類 咸沒慾趣 日夜 受大苦惱
(여시등류 함몰약취하여 일야에 수대고뇌하나니)
若不拯濟 何時出離
(약부증제면 하시출리리요)

나의 본래 서원은 「네 홀로 생사대해를 뛰어나는 것(깨달음)」을 말함이 아니고 (깨달아) 또한 널리 중생을 위하고자 함에 있나니 어인 까닭인가 하면 그대 스스로 무시이래 금생에 이르도록 항상 사생의 세상을 만나서 (네가지 형태 — 난생 · 습생 · 화생 · 태생 — 로 몸 바꿔 오면서) 수도 없이 가고 옴에 다 부모의 몸을 빌어 드나들었거니.

그러므로 아득한 옛날부터 네 부모가 한량없고 가 없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살피건대 육도의 모든 중생들은 그대의 여러 생에에 부모아님이 없는지라

이 같이 한가지 무리인데 악도에 빠져서 밤낮으로 큰 고뇌 받고 있으니 만약 (이들을) 제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에 벗어날 것인가.

嗚呼哀哉 痛纏心腑
오호애재라 통전심부로다
千萬望汝 早早發明大智 具足神通之力
천만망여하노니 조조발명대지하여 구족신통지력하고
自在方便之權 速爲洪濤之智楫
(자재방편지권하여 속위홍도지지집하여)
廣度欲岸之迷倫
(광도욕안지미륜이어다)
君不見 從上諸佛諸祖 盡是昔日 同我凡夫
(군불견가 종상제불제조 진시석일에 동아범부니라)
彼旣丈夫 汝亦爾 但不爲也 非不能也
(피기장부라 여역이니 단불위야언정 비불능야니라)

아아, 슬프고 애닯도다. 가슴 아프고 애간장 타는 구나.

천만번을 그대에게 바라노니 어서 빨리 큰 지혜 일으키고 밝혀서 신통력 갖추고, 자재방편 권도로서 속히 만경창파 거친 파도에 지혜의 돛대되어 탐욕의 언덕 미혹에 잠긴 무리들을 널리 건질지어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위로는 제불조사들이 옛날에는 다 나와 똑같은 범부였도다.

제불조사 저들이 이미 장부라면 그대 또한 장부려니 다만 그리되지는 않았을(깨닫지 못했을) 지언정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古曰道不遠人 人自遠矣
(고왈도불원인이라 인자원의라하여)
又云我欲仁 斯仁 至矣 誠哉 是言也
(우운아욕인이면 사인 지의라시니 성재라 시언야여)
若能信心不退則 誰不見性成佛
(약능신심불퇴즉 수불견성성불이리요)
我今 證明三寶 一一戒汝
(아금에 증명삼보하옵고 일일계여하노니)
知非故犯則 生陷地獄 可不愼歟 可不愼歟
(지비고범즉 생함지옥하리니 가불신여며 가불신여아)

**"열가지 계법지녀 바른 깨달음 속히 이뤄 미혹 중생 제도하라"**

옛 말씀에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멀리하는 것」이라 했다.

또 말하기를 「내가 어질고자 하면(도를 닦고자하면) 그 어짐(도)이 다다른다」하였으니 진실하도다 이 말씀이여. 만약 믿음이 굳어 물러서지 아니한다면 누군들 견성 성불하지 못하리오. 내가 이제 삼보전에 증명하고 하나하나 그대에게 경계하노니 그른 줄 알면서 짐짓 범한다면 살아서 지옥에 떨어지리라.

가히 삼가해야지 안 그런가. 가히 삼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經曰, 玉兎昇沈摧老像 金烏出沒促年光
(송왈, 옥토승침최로상이요 금오출몰촉년광이로다)
求名求利如朝露 或若或榮以夕烟
(구명구리여조로요 혹약혹영사석연이로다)
勸汝慇懃修善道 速成佛果濟迷倫
(권여은근수선도하노니 속성불과제미륜이리요)
今生若不從斯語 後生當然恨萬端
(금생약부종사여하면 후생당연한만단하리라)

게송으로 말하노라.

옥토끼 오르내려(달이 뜨고 지고 하는 모습 - 세월의 흐름을 말함) 늙음을 독촉하고 금까마귀 드나들며(해 뜨고 지는 것) 세월을 재촉하네. 명리를 구함은 아침 이슬같고 괴롭다 영화롭다 저녁 안개(연기) 흡사하다.

그대에게 은근히 수도하길 권하노니, 어서 빨리 불과 이뤄 미혹중생 제도하라. 금생에 이 한말 따르지 않을지면 후생에 반드시 온갖 한탄 크고 크리.

龍眼

## 지상 법석

# '내가 있다' 집착버리면

## 관응스님 <직지사 조실>

불교는 깨침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법문은 그 깨친 법성자리를 해설하는 말입니다. 불 법 승 삼보 가운데 법을 깨달으면 부처님이 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이가 바로 승입니다. 부처님이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사는 자리, 즉 다시 말하면 눈에 가면 보고, 귀에 가면 듣고, 손으로 가면 만지고 나무에 들어가면 나무가 살고 바위에 들어가면 바위가 흩어지지 않는 생명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체를 안 부처님은 따라서 모든 것이 자재한 분입니다. 그것은 즉 몸을 하나로 만들려면 만들고, 천을 만들려면 만들고, 크고 작게, 무(無)와 유(有) 등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지혜가 치성(熾盛)합니다. 이것은 지혜가 세상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훨 타오르는 불꽃같이 성하다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은 몸이 단정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32상 80종호로 흔히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해도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 스스로 몸이 단정해집니다. 그래서 신(身) · 구(口) · 의(意) 삼업을 자기 뜻대로 행해도 중생에게 덕이 됩니다. 공자나 예수 같은 성인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빈그릇'이 되어야

법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하였는데 법에 대한 설명은 확실히 드러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라한은 부처님께서 처음 20년간 설한 법에 대해서만 아는 이들입니다. 즉 애욕이 깨진 상태를 완전한 열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묘법연화를 설하시면서 아라한들이 이해하지 못함을 알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자 아라한들이 '우리가 40년간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았는데 왜 설하시지 않는가'하고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라한들은 이와같이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증상만(憎上慢)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만을 가지고 나라는 집착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법화경이나 화엄경의 진리를 가르친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컵에 물을 먼저 담아 놓으면 뒤에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밑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을 알기 위해서는 속에 나란 생각을 텅비우고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에 집착해서는 올바른 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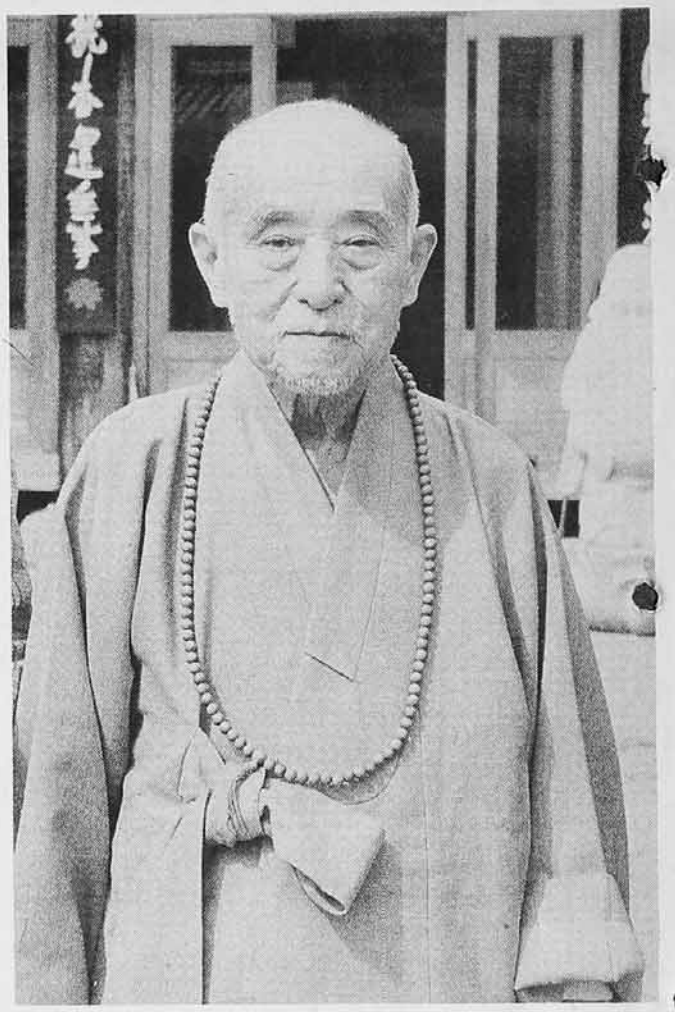
예를 들어 눈에는 돌가루나 흙가루 등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멀쩡하게 보이던 눈이 흐려져 눈이 안 보이거나 헛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가루는 돌가루나 흙가루보다 좋은 것이니까 눈에 붙여도 괜찮겠지 하고 붙이면 역시 안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학문이나 지식이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면 본래 법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집착을 하면 그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돈에 집착을 하면 돈의 종이 되고, 음식에 집착을 하면 몸에 탈이 나게 됩니다. 또 약을 먹으면 몸이 낫지만 거기에 집착하여 과용하면 중독이 되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도 너무 부족하거나 지나쳐서는 안되지만 법도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법 자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즉 한 법에 마음이 집착이 되면 마음이 자재치 못하여 비록 눈을 떴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생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비워야만 물건이 보이고 마음을 비워야 바야흐로 성품이 보인다고 한 것입니다.

법계성은 큰 거울과 마찬가지로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아름답게 한다고 거기에다 단청을 하면 본성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본성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에 앉은 먼지를 닦아내야 합니다.

삼귀의에 보면 '귀의법 이욕존(歸依法 離慾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체는 일체의 욕심을 떠나 있습니다. 즉 법에는 나라고 주장하고 자기를 도우려는 생각이 없어 모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입으로는 매일 외우지만 실천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바라밀의 수행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밝은 거울에 페인트 칠해 놓은 것을 닦아내야 법계성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 1910년 6월 15일생.
△ 29년 탄옹스님 은사로 득도.
△ 일본 龍谷大에서 수학.
△ 김용사 강사 역임.
△ 무문관 6년수행.
△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저서로 〈유식론 해설〉등.

### 쌓인 먼지 닦아내야

우리가 지은 신구의 삼업이 낱낱이 티끌 속에 들어 있어 후일 우리가 죽은 뒤 염라국에 가면 죄가 비치는 거울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저울도 있어서 그간의 죄를 무게로 달기도 하지요.

우리 중생의 한마디 소리와 행동까지 진진찰찰의 낱낱 분자에 가서 녹음이 되고 사진 찍힙니다. 음파 · 광파가 모두 파동을 쳐서 내가 밉다는 생각을 한다거나 벌레가 하는 일 등 모든 낱낱의 것에 관하여 아는 것이 곧 화엄의 도리입니다.

천태 지의선사가 법화삼매에 드니까


## 佛教聖地巡禮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태국 5일**
**₩595,000**

서울-방콕(2박)-아유타야, 방파인, 수상시장, 새벽사원, 왕궁, 에머랄드 사원, 무암보란, 황금불 사원-파타야(2박)-방콕-서울

· **출발일** : 2月/2, 7, 9, 14, 16, 21, 23, 28 3月/2, 7, 9, 14, 16, 21, 23, 28, 30

| | |
|---|---|
| 대만 5日 ₩595,000 | 서울-대북-일월담(1박)-고웅 · 불광사(1박)-화련(1박)-대북(1박)-서울<br>2月/1, 8, 15, 22 3月/1, 8, 15, 22, 29 |
| 스리랑카 6日 ₩1,070,000 | 서울-콜롬보(1박)-아누다라푸라-하바라나(2박)-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1박)-콜롬보(1박)-서울<br>2月/3, 10, 17, 24 3月/3, 10, 17, 24, 31 |
| 미얀마 · 태국 8日 ₩1,400,000 | 서울-방콕-양곤(1박)-파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페구-양곤(1박)-방콕(2박)-서울<br>2月/3, 10, 17, 24 3月/3, 10, 17, 24, 31 |

## 新春海外旅行

-최고의 여정 · 최상의 서비스 · 최대의 기쁨-

| | |
|---|---|
| 방콕 · 파타야 5日 ₩685,000 |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br>2月/1, 4, 5, 8, 11, 12, 15, 18, 19, 22, 25, 26 (₩715,000)<br>3月/1, 4, 5, 8, 11, 12, 15, 18, 19, 22, 25, 26, 29 |
| 방콕 · 푸켓 5日 ₩795,000 | 서울-방콕(1박)-푸켓(3박)-서울<br>2月/2, 4, 5, 9, 11, 12, 16, 18, 19, 23, 25, 26<br>3月/4, 11, 18, 25 (₩725,000) |
| 동남아 3국 5日 ₩745,000 | 서울-싱가폴(4박)-바탐 · 조호바루-서울<br>2月/1, 3, 4, 6, 8, 10, 11, 13, 15, 17, 18, 20, 22, 24, 25, 27<br>3月/1, 3, 4, 6, 8, 10, 11, 13, 15, 17, 18, 20, 22, 24, 25, 27, 29, 31 (₩655,000) |
| 방콕 · 푸켓 · 싱가폴 6日 ₩895,000 | 서울-방콕(1박)-푸켓(2박)-싱가폴(2박)-서울<br>2月/2, 7, 9, 14, 16, 21, 23, 28<br>3月/7, 14, 21, 28 (₩795,000) |
| 하와이 5日 ₩679,000(일급) ₩765,000(특급) | 서울-호놀룰루(3박)-기내(1박)-서울<br>2月/1, 2, 4, 8, 9, 11, 15, 16, 18, 22, 23, 25<br>3月/1, 2, 4, 8, 9, 11, 15, 16, 18, 22, 23, 25, 29, 30 |
| 미국 서부 버스 7日 ₩799,000 | 서울-LA(1박)-훌렉스웹(1박)-라스베가스(1박)-후레스노(1박)-샌프란시스코(1박)-기내(1박)-서울<br>2月/3, 6, 10, 13, 17, 20, 24, 27 3月/6, 13, 20, 27 |
| 유럽 5개국 10日 ₩1,790,000 | 서울-영국-독일-스위스-이태리-프랑스-서울<br>2月/2, 9, 16, 23<br>3月/2, 9, 16, 23, 30 |
| 사이판 4日 ₩735,000 | 서울-사이판(3박)-서울<br>2月/2, 3, 5, 9, 10, 12, 16, 17, 19, 23, 24, 26<br>3月/2, 5, 9, 12, 16, 19, 23, 26, 30 (₩645,000) |
| 괌 4日 ₩735,000 | 서울-괌(3박)-서울<br>2月/2, 9, 12, 16, 23, 26<br>3月/2, 5, 9, 12, 16, 19, 23, 26, 30 (₩645,000) |
| 호주 · 뉴질랜드 8日 ₩1,745,000 |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로토루아(2박)-오클랜드(1박)-시드니(2박)-서울<br>2月/2, 4, 5, 7, 9, 11, 12, 14, 16, 18, 19, 23, 25, 26, 27, 28<br>3月/2, 4, 5, 7, 9, 11, 12, 14, 16, 18, 19, 21, 23, 25, 26, 28, 30 (₩1,545,000) |

**여행조건** 10人 이상 출발(허니문은 1쌍이라도 매일 출발), 전 일정 식사 제공,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허니문은 특급호텔), 해외 여행자 보험 자동 가입, 현지 가이드 동행

## 新婚旅行

"새로운 출발, 허니문 전담팀이 권해 드리는 일곱색깔 무지개 여정"

| | | |
|---|---|---|
| 방콕 · 파타야 | 5日 | ₩ 635,000 |
|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 | |
| 푸켓 | 5日 | ₩ 740,000 |
| 서울-방콕(1박)-푸켓(2박)-방콕(1박)-서울 | | |
| 대만(화련) | 4日 | ₩ 520,000 |
| 서울-대만(화련) 3박-서울 | | |
| 괌 | 4日<br>5日 | ₩ 670,000<br>₩ 785,000 |
| 서울-괌(3박, 4박)-서울 | | |
| 사이판 | 4日<br>5日 | ₩ 670,000<br>₩ 785,000 |
| 서울-사이판(3박, 4박)-서울 | | |
| 하와이 | 5日 | ₩ 790,000(일급)<br>₩ 890,000(특급) |
| 서울-하와이(3박)-기내(1박)-서울 | | |
| 호주 | 5日<br>6日 | ₩ 1,109,000<br>₩ 1,149,000 |
|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 2박)-시드니(2박)-서울 | | |

**특전** 2개월 전 예약시 5% 할인, T-Shirt, 모자 증정, 축하 와인, 과일바구니 제공, 해산물 부페 제공

불교 성지 순례 전문 21세기를 지향하는 (주) 아 태 관 광 국외 여행업 제817호 ☎ 732-3200 (代)